

# 수 학 보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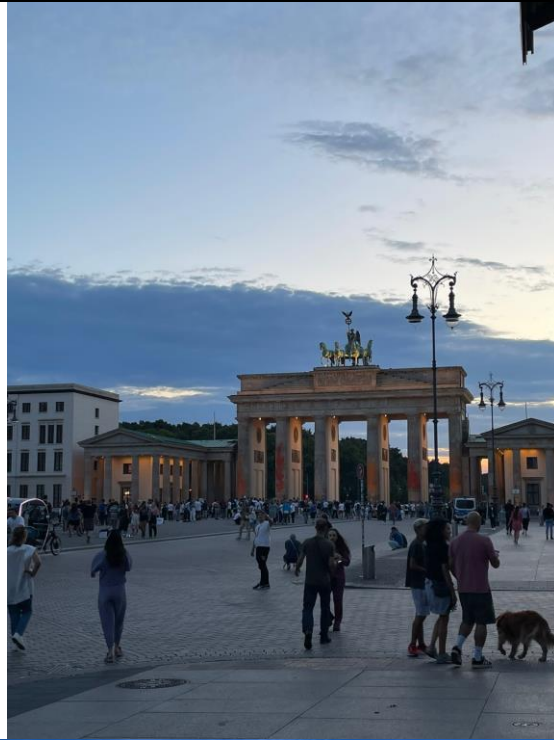
소 속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대학(학부)/전공)	
파 견 국 가	독일	
파 견 대 학	Osnabrück Hochschule	
파 견 기 간	시작	2023.08.21(년/월)
	종료	2024.02.05(년/월)

준 비 과 정	<b>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b>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1년 전부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양한 문화권을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유럽을 위주로 찾아봤고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독일로 가기로 결정했다.  어학성적은 지원 시기 직전 방학을 이용해 아이엘츠를 준비했다. 지원하기 전까지는 지원동기서와 가려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또한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언어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다.
	<b>파견교 지원 과정</b>
	본교에서 교환학생에 합격하고 1-2개월 이내에 파견교에서 제출할 서류를 안내하는 메일이 왔다. 파견교에서 안내하는 그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혹시 오랫동안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정보가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본교 국제교류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b>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b>
<b>비자 : 출국 이후 독일에서 발급(독일에서 최초비자 발급 가능)</b> 저는 정규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개월 동안 여름 독일어 학교를 수강했다. 그 시기에 비자가 없는 학생들은 압멜등과 비자 발급을 할 수 있게 파견교에서 안내해 주었다. 물론 정규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과 관련한 도움은 계속 받을 수 있다.  <b>슈페어콘토(재정증명서), TK공보험</b>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달에 약 940유로(940*6-7개월)의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슈페어콘토에 가입하고 생활비를 송금하면 한 달에 한번씩 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가입할 때 독일의 공보험인 TK에도 가입할 수 있다. 공보험비는 한달에 약 120유로이다. 사보험 가입시에는 금액이 더 낮지만, 비자	

	<p>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후에 다시 독일에 입국할 때 공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보험에 가입했다.</p> <p>그러나 공보험은 서류와 행정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해서 보험카드를 발급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슈페어konto 어플을 통해 보험을 활성화한 후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며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도 3개월이 걸릴 수 있다.</p> <p>*9월 중순에 예기치 않게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보험 카드가 없어서 당일 진료비 150유로와 하루 입원비 1110유로를 지불할 뻔했다. 보험카드가 없는 경우 병원에 갈 때는 보험가입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p> <p><b>항공권</b> 에어프레미아 독일행 또는 루프트한자. 국제학생증으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다.</p>
<p><b>파견 학교</b></p>	<p><b>공항 픽업 &amp; 오리엔테이션</b></p>
	<p>파견교에서 버디를 맺어주는데 그 친구와 연락해서 오스나브뤼크 역에서 기숙사까지 안내 받을 수 있었다.</p>
	<p><b>수업 &amp; 학교 활동</b></p>
	<p><b>독일어 여름학교</b> 정규학기 시작 전에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처럼 오전에는 독일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선택적으로 다양한 체험 수업(독일 요리 체험, 수영장, 베를린 견학, 근교 도시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지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독일어를 미리 배워가는 것이 좋다.</p> <p><b>정규수업</b> 독일어 A2 독일어 A1.2를 여름학교에서 수강한 후 정규 수업 때 들었으나 난이도 차이가 커서 수업을 수강하는 내내 어려움이 있었다.</p> <p>비즈니스 영어3 비즈니스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며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했다. 사업적인 영어 대화를 배울 수 있다.</p>
	<p><b>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b></p>
<p>학교 내 맨자(학식당)가 있다. 점심시간에 이용 가능하다.</p>	

<b>주 변 환 경</b>	<b>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b>
	<b>Jahnplatz6(기숙사)</b> 기숙사 주변에 Netto, DM, Rewe, Aldi, Absolute와 같은 마트가 많았고 물가가 저렴해서 좋았다. 그러나 10명이 주방을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20분정도 걸어가면 시내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기 쉽다.
	<b>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b>
	오스나브뤼크는 독일 니더작센주에 위치해 있으며 뮌스터, 브레멘과 가깝고 학생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함부르크까지 갈 수 있다.
<b>비 용  0</b>	<b>등록금 (해당 학생만)</b>
	Semester fee 225유로
	<b>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b>
	1개월- 224,90유로 -> 1월부터 인상 273,990유로
	<b>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b>
	독일어 교재비 20유로 TK공보험비 월 120유로 알디톡 유심 월 15유로
	<b>생활비</b>
	<b>1000 유로 (기숙사, 보험비, 통신비 포함)</b>
<b>한달 평균 지출 비용</b>	
<b>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b>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갔다면 더 좋았을 것들도 있었겠지만, 직접 부딪혀 해결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별첨] 수학보고서

